

# ‘폐교 위기’ 신안 흥도분교, 내년 10명 전학·입학

## 현장 방문·설명회 등 홍보 성과 경기·경남 등 전학6명·신입 4명

폐교위기에 놓였으나 과격적인 조건으로 입학 문의가 쇄도했던 신안군 흥도분교에 전학생과 신입생 등 10명이 다닐 수 있게 됐다.

신안군은 현장방문과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흑산도 흥도분교에 다닐 학생으로 4세대 10명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와 경남, 목포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로, 전학생 6명과 신입생 4명이다.

흥도분교는 1949년 6월12일 공립 초등학교로 개교했다. 신안군에는 흥도분교를 포함해 37개의 학교가 있다. 섬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1970년 120개였던 학교수는 3분의1 수준으로 줄었으며, 대부분 폐교위기에 놓여있다.

신안군은 섬마을을 지켜온 흥도분교가 학생수 감소로 폐교위기에 처하자 주민들과 함께 ‘작은 섬 학교’ 살리기 대책을

발표했다.

흥도분교에 입학 또는 전학한 학생 부모에게는 숙소를 제공하고, 매일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기로 했다.

또 아동 1인당 연간 40만 원의 햇빛아동수당 지급(2024년부터 80만원)을 약속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지에서 180여 건의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2차례의 서면심사를 거쳐 5세대가 흥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신안군은 지난 4~5일 이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갖고, 최종적으로 4세대 10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신안군은 친구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목포로 전학 가야만 했던 학생들이 역으로 돌아오면 흥도분교 교정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대부분 학교가 학생 수 60인 이하의 작은 학교다. “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들 학교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 강진군,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 3명 추첨 지역상품권 지급

강진군은 ‘기부’하면 ‘기부’니 좋아요!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와 기부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대상은 전 국민으로 오는 19일까지 강진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군은 이 가운데 3명을 추첨해 강진사랑상품권 10만원을 추가로 증정하고, 당첨자에게는 오는 22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0만 원을 13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강진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기부자)이 강진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강진군의 답례품을 받고 이 기부금은 강진군을 위해서 쓰인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답례품 3만원까지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우, 쌀, 파프리카, 전복 등 강진 대표 농수축산물과 푸소 체험권, 강진사랑상품권, 가우도즐기기 이용권 등 다채로운 품목들이 마련돼 있다.

참여를 희망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 후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에서 대면으로 기부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청 총무과(061-430-3462,4)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 크리스마스 대형트리 점등 무안군 남악 중앙공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일 연말연시를 맞아 삼향읍 남악 중앙공원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희망의 불빛, 8m 높이의 대형트리 점등으로 아름다운 겨울밤을 선물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유동 인구가 많은 남악 중앙공원에 2020년부터 대형트리와 주변을 밝혀 줄 스트링 라인을 설치하고 트리 주변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군민뿐만 아니라 남악신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트리 맛집으로 소문나 ‘연말에 꼭 한번 들리게 되는 남악신도시 야경 1번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트리는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점등되며 내년 설 명절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소중한 사람들과 남악 중앙공원에 설치된 트리를 보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환한 트리 불빛처럼 따뜻한 연말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 강진군 ‘걷기 챌린지’ 기준 변경 내년부터 기간 확대

강진군이 올 한해 지역내 걷기 신드롬을 일으킨 ‘걷기 챌린지’ 기준과 상품권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변경한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걸음 수와 기간은 늘어나고 챌린지 달성자를 어르신과 일반층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매일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20만보를 달성해야 하며, 하루 8000보까지 인정한다.

성공보상품인 1만원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만 60세 이상 달성자에게는 전액 지급하고 만 19세 이상에서 59세까지는 달성자의 30%를 무작위 추첨해 1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 매일 실시한 건강 걷기 챌린지는 28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목표 달성자는 23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워킹온·강진커뮤니티’ 가입자는 6일 기준 5966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가 참여하며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목표 달성자 중 기부희망자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 기부도 가능하며, 건강생활실천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병행할 수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 영암군, 연말 농기계 보조 지원 농번기 적기 투입 목표

영암군 금정면(면장 황태용)은 지난 6일 ‘2024년도 농기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초에 진행되던 농기계 보조사업자 선정을 연말로 당긴 것은, 민선 8기 영암군의 농정혁신 방안 중 하나이다.

연초에 보조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 등 절차를 거치면, 정작 그 쓰임이 절실한 봄철 농번기를 지나 농기계가 농사현장에 투입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영암군은 이런 관례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번부터 내년 보조사업자를 올 연말에 선정하기로 했다.

금정면 심의회에는 농업단체 대표와 마을이장 9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인력 절감형 농기계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농기계 3개 단위 사업 대상자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44명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32명, 인력 절감형 농기계 11명, 농업용 지게차 1명, 구성으로 선정돼 총 7725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선정 농업인은 영암군의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내년 봄 농번기 전에 농기계를 구입해 농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암=이병영 기자**



강진군이 ‘걷기 챌린지’ 기준과 상품권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변경한다.

**강진군 제공**

## 해남군, 농자재 반값 지원 등 56개 제도 손본다

### 기존 출산 양육 시책 강화

해남군이 중소농에 대한 농자재 반값 지원 등 신규사업을 포함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과 더불어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사업 및 제도 총 56건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고, 차질없는 시행으로 군민 생활의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행정·경제, 복지·환경, 안전·건설, 농수축산, 문화·관광 총 5개 분야에 56개 사업이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0.1~1ha 중소농의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청년어업인이 귀어해 실무연수로 근무시

보수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어업인 귀어인턴 지원과 허가어선을 구입해 청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예비·초기 청년창업인에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해남형 청년창업지원 사업과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년 문화공간 두드림하우스 조성확대, 빈집수리비 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 정착 지원이 강화된다.

보훈예우·참전명예수당 유족수당이인상되는 한편 지원범위도 확대되며, 주택 화재이재민에게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사업, 취약계층 맞춤형 마음 건강 치유프로그램 운영도 시작한다. 출산·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신전 건강 관리 및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관내 산부인과 이용 분만료비 및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도입되는 한편 기존 출산, 양육 시책도 크게 강화되어

추진된다.

안전·건설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 가능한 후면교통단속장비가 신규로 설치된다. 10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실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해남 민원상담톡’이 내년에는 본격 시행되며 80세 이상 어르신, 중증장애인의 민원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여권배달서비스가 시행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기존 문화재 국가 유산 체제 전환, 시행되는 내용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등이 담겼다.

상세한 내용은 해남군 홈페이지 군정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 영암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평가 행안부장관상

### 보조금 운용혁신 우수 평가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지방재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

고 있다.

이번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 및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으로 1,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창의성·노력도·예산 효율화 성과·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수용성·결과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예산 절감 분야 11건, 보조금 운용 혁신 분야 4건, 세입 증대 분야 18건 등 총 33개 지자체(광역

9, 기초 24)를 선정했으며, 영암군은 보조금 운용혁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대대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지방재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영암군민과 지방보조사업자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이병영 기자**